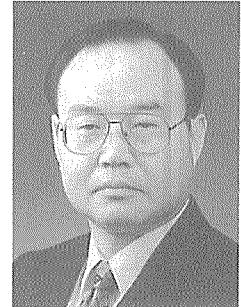


「新經濟」를 위한 中小企業政策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新經濟」의 指向과 中小企業政策

가. 「新經濟」의 指向

과거 우리 경제는 政府의 指示와 統制를 발전메카니즘의 根幹으로 하여 성장해 왔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문으로 資源이 집중되도록 指示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문으로 資源이 배분되지 않도록 統制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經濟發展의 목적으로 부합되도록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經濟의 規模가 커지고 構造가 複雜해지며 사람들의 意識도 民主化됨에 따라 이제 그와 같은 발전메카니즘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는 民間主導의 경제운영이, 80년대 초반에는 經濟自律화가 추구되었으나, 당시에는 政治的民主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經濟만 民間主導로 운영되거나 自律化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후 80년대 말부터 政治的民主화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經濟發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民主主義가 가져다 준 개인의 자유가 勞使紛糾 등 개인적 욕구분출과 集團利己主義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新經濟」에서는 政府의 指示와 統制 대신에 國民의 參與와 創意가 경제발전 메카니즘의 근간

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경제활동에 대한 국민 각자의 參與와 創意로 연결하여 권위주의체제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은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能動的으로 創意력을 발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經濟發展을 위한 國民의 參與와 創意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政府의 規制를 완화하여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 각자의 기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經濟正義를 확립하여야 한다. 「新經濟 5개년계획」에서는 規制緩和와 經濟正義 확립을 위해 財政·金融·經濟行政規制 등 경제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① 財政改革은 재정의 衡平機能과 景氣調節機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稅率을 인하하고, 課稅標準을 현실화하며, 租稅減免을 축소하고, 租稅捕捉率을 높이며, 재정지출 중 人件費,所得補償的支出 등 고정적 지출의 비중을 낮추어 가고 있다. 그 결과 92년에 비해 95년에는 所得稅 최고 세율은 50%에서 45%로, 綜合土地稅의 課標現實化率은 17.3%에서 31.6%로, 재정지출에서 고정적 지출의 비중은 65.7%에서 57.8%로

개선되었고, 公共資金管理基金이 신설되었으며, 그밖에도 각종 特別會計 및 基金의 정비, 公企業의 民營化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 金融改革은 金融市場과 金融產業에서의 모든 결정이 市場機能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自律化,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競爭을 촉진시키는 開放化, 그리고 자율화와 개방화에 따른 금융질서의 교란을 막기 위한 金融節度의 確立이라는 세가지 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金利自由化, 은행장 인사의 자율화, 정책자금의 축소 등 중요한 金融自律化 조치가 이루어졌고,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金融實名制를 실시하고 金融監督機能을 강화하는 등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③ 經濟行政規制改革은 각종 規制를 撤廢·緩和하고 규제방식을 전환하여 정부부문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토지이용에서부터 공장설립, 생산, 유통, 수출입 및 가격결정 단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제행정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각종 節次를 簡素화하였다.(작년 12월말까지 총 1,970건의 규제완화 대상과제 중 1,753건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 政府는 經濟行政規制 緩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 「行政規制 및 民願事務基本法」을 제정하였다. 앞으로는 각종 규제의 철폐나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規制緩和뿐만 아니라直接規制를 間接規制(예: 가격관리)로, 事典的 規制를 事後的 規制(예: 환경)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政府는 參與와 創意를 국민의 의식에 직접 호소하는 意識改革運動을 병행하고 있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共同體意識을 함양함으로써 모든 경제

주체들의 參與와 創意를 직접 유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의식개혁은 공직자가率先垂範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經濟意識改革은 언론·소비자단체 등의市民運動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94년말 대통령의 「시드니구상」에서는 새로운 國家發展戰略으로 世界化가 제시되었다. 世界化는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국가발전의 모든 부문에서 世界一流化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는 세계가 국경이 없는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로 이행해 가는 「地球村化」의 과정에서 우리가 生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世界一流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新경제」는 대체로 金泳三 大統領 재임기간 중에 추진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궁극적 목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완성하고,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다지자는 것이다. 반면에 「世界化」는 보다 長期的인 視界를 가지고 21세기에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世界化를 위해 政府는 教育, 法秩序, 政治와 言論, 行政과 地方, 環境, 文化와 意識 등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① 教育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次世代 國民을 양성하기 위해個人의 人性과 創意가 중시되고 競爭原理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② 法秩序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기초질서가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공정한 행위준칙으로서의 法의支配가 정착되어야 한다.

③ 政治와 言論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치의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언론도 社會의 公

器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④ 行政과 地方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地方自治制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⑤ 環境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우리의 次世代들이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模範的인 環境共同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⑥ 文化와 意識을 世界化하여야 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에 나아가 세계인들과 대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姿勢와 意識을 갖추어야 한다.

나. 中小企業經營環境의 變化

금년에는 출범한지 1년이 지난 WTO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각국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국가간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됨으로써 우리 中小企業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① 開放의 폭이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관세인하와 함께 비관세장벽이 점차 철폐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지만, WTO 협정에 따라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절차가 명료화되고 紛爭解決節次가 확립됨으로써 우리의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WTO 협정에서는 외국인의 投資에 대하여 國內民과 동등한 대우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中小企業의 海外投資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각종 金融 및 稅制支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수출지원금융·수출손실준비금 등 輸出과 國產機資材 사용과 관련된 금융·세제지원은 國際規範에 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총액대출제도 등 韓國銀行의 중소기업지원금융이 축소되고 우대

금리도 자유화될 것이므로 앞으로 中小企業은 점차 자기신용에 따라 자금을 조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團體隨意契約制度나 固有業種制度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도 축소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團體隨意契約制度는 그동안 中小企業의 판로지원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시장개방에 대응한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固有業種制度는 大企業의 진입을 막는다 해도 시장 개방으로 외국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실효성이 없어질 전망이다.

다. 中小企業政策의 基本方向

「新경제」에서는 中小企業을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보고 있다.

국경없는 無限競爭時代를 맞이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中小企業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產業構造가 노동집약산업에서 기술집약산업으로, 조립생산위주에서 機械部品素材產業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견실한 中小企業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의 中小企業政策은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大企業으로부터 中小企業을 保護하거나, 의무대출비율이나 정책자금 등과 같이 中小企業을 직접적으로 支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생적인 競爭力を 배양하기 보다는 限界企業을 구제하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中小企業의 成長과 經營安定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環境變化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新경제」에서는 中小企業이 ‘保護의 客體’가 아니라 ‘競爭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中小企業이 정부정책에 의한 보호나 지원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튼튼한 自生

力を 갖춤으로써 경제의 뿌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新경제」에서는 中小企業政策의 方向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 中小企業의 경영기법의 現代化를 적극 지원한다.

② 自律化·情報化를 통하여 구조고도화를 촉진한다.

③ 技術開發 및 品質向上을 강력히 지원한다.

④ 中小企業과 大企業간에 상호 동반자적인 關係를 조성한다.

⑤ 中小企業간의 競争을 촉진한다.

中小企業政策의 推移와 成果

가. 「新경제 100日 計劃(93.2~6)의 中小企業施策」

① 中小企業의 자동화·정보화·신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構造改善事業을 추진하였다.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환원하는 등 정부의 예산절감과 같은 비인플레이션 방법으로 1조3천억원을 조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2,380개 先導的 中小企業에 장기저리로 지원하였다. 貸出條件은 연리 7%,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였으며, 신청에서 대출까지 절차를 21일 내에 처리하도록 간소화하였다.

② 中小企業의 販路隘路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자금 1조원을 조기 집행하고, 정부의 豊算節減分(1,184 억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였다.

③ 中小企業의 資金難 缓和를 위해 與信禁止業種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비업무용이나 제3자 名義 여부를 불문하고 中小企業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中小企業의 상업어음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 매출액의 1/2로 되어 있던 업체별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은행이 자율적

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④ 기업활동의 自律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건의와 각 부처에서 발굴한 670 개 과제에 대해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94년말 까지 622건을 완료하였다.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1만불 이하의 少額輸出에 대한 수출승인 면제, 農業振興地域안에 있는 중소기업자의 기존공장에 대한 공장증설 허용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⑤ 「企業活動 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93. 5)을 제정하여 創業과 工場設立節次, 법정의무고용제도 등 각종 행정규제 및 절차를 대폭적으로 개선·간소화 하였다.

나. 93.7~94.12의 中小企業施策

① 93. 8월 金融實名制의 실시로 中小企業이 겪는 資金難을 해소하기 위해 緊急經營安定資金 등 총 1조 7,247억원을 44,387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中小企業이擔保力이 부족하여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은행에서 보증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업체당 信用保證限度의 매출액의 1/4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② 金融自律化 과정에서 中小企業에 대한 정책금융이 점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中小企業에 대한 財政支援을 93년의 4,700억원에서 94년에는 9,460억원으로 2배 확대하였다. 특히,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財政出捐을 93년 1,500억원에서 94년에는 3,30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支援을 강화하였다.

③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 法律」(94. 1)을 제정하여 지방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地方中小企業 育成計劃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한편, 94년에 地方中小企業育

成資金 2,000억원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自體財源 1,852억원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④ 「新경제 100日計劃」에서 추진된 構造改
善事業의 成果를 바탕으로 94년에 2,096개 업
체를 대상으로 5,000억원을 지원하였다.

⑤ 中小企業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外國人 產業技術研修制度를 확대 실시하여 94
년 상반기에 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4,000여
中小企業에 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 섬유 및
신발산업에 대하여 1만명을 추가 도입하였다.
產業界의 技能人力 수요증가에 따라 94년 병
역특례지정 대상업종을 10개에서 全 業種으로
확대하고, 편입대상 기술자격종목을 90개에서

696개로 늘렸으며, 4,785개 업체에 산업기능인
력 28,894명을 공급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진흥
공단에 2년제의 야간 장기교육과정 5개과(260
명)을 개설하였다.

⑥ 中小企業固有業種을 93년 237개에서 94
년에는 135개로 102개를 해제하였으며, 團體
隨意契約對象品目도 93년 518개에서 94년에
는 315개로 203개를 줄임으로써 中小企業의
경쟁촉진기반을 강화하였다.

⑦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中小企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中小企業關聯 8개 法律을 전면
적으로 정비하여 5개 법률로 통·폐합하였다.

Table 1. 중소기업 관련 법률 제·개정

종 전	개 편	제·개정 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좌동(전면개정)	• 중소기업자범위기준을 근로자 수 외에도 소유 경영 형태의 질적기준 병행 적용
• 중소기업진흥법 •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구 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자동화, 정보화, 국제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규정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시 중소기 업간 경쟁제도 도입
• 중소기업사업조정법 • 중소기업계열화 촉진법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고유업종해제근거를 명문화 •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좌동(전면개정)	• 창업보육센타의 법적 근거 마련 • 창업관계 인허가 일괄처리 확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개정하지 않았음.

다. 95년의 中小企業施策

(1) 中小企業支援 9大施策

작년에 中小企業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經營安定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95년 2월 「新경제」 추진회의에서 「中小企業
支援 9大施策」을 확정하여 금융지원·構造改
善·품질혁신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① 中小企業 金融支援의 대폭 확대
첫째, 中小企業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이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95년 3월까지 중소기업은
행에 1,000억원을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서 지
원하였고, 표지어음을 4월부터 相互信用金庫
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11월
에는 3단계 金利自由化에 따라 銀行의 표지
어음 발행조건을 완화하였다.

둘째, 中小企業에 대한 外貨資金供給을 확대하기 위해 95년 2월부터 延支給 輸入期間을 수출용은 180일(인근지역 90일), 내수용은 90일(인근지역 60일)로 각각 30일씩 연장하였고, 輸出先受金 영수한도도 완전 자유화하였다.

셋째, 中小企業의 창업지원을 위해 95년 7월부터 10대 기업그룹中 所有分散이 잘된 기업에 대하여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投資限度(자본금의 20%)를 철폐하였다.

넷째, 中小企業의 直接金融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會社債 발행과 유상증자를 전액 허용하는 한편, 95년 2월부터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保證限度도 제조업에 한해 매출액의 1/4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95년 3월부터 中小企業의 證市上場要件도 완화(業歷 10년 7년)하였다.

② 中小企業 信用保證制度의 확기적 보강

첫째, 신용보증기관의 保證能力을 확충하기 위해 95년 7월 신용보증기금법 등을 개정하여 運用倍數를 종전 기본자산의 15배에서 2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出捐期限(95. 12)을 연장하였으며,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政府出捐額 4,100억원을 조기에 집행하였다.

둘째, 中小企業의 擔保力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地域信用保證組合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組合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95년 7월 信用保證基金法 등 개정시 再保證支援制度를 도입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비율(50~60%)을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構造改善業의 확대추진

첫째, 96년 종료예정이었던 제2차 構造改善事業을 「新경제 5개년계획」이 끝나는 97년까지 연장하고, 1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95년 5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中小企業福券은 95년 중

400억원 규모를 발행하여 총 71억원의 利差補填財源을 조성하였다.

둘째, 構造改善事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5년 12월 시화공단에 自動化센터(건평 3,837평, 대지 9,000평)를 완공하였다.

④ 品質革新事業의 대대적 전개

첫째, 제품 100만개당 불량품을 100개 이하로 줄이기 위한 「100PPM 品質革新事業」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95년 4월 全國前進大會를 개최한 데 이어서, 5월부터는 업종별·지역별·모기업별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또한 표준협회 등에 專門教育課程을 개설하였으며, 103개 업체를 모델업체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諮問과 診斷을 실시하였다.

둘째, 中小企業이 國제적인 品質認證基準인 ISO 9000 규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종 지도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ISO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94년 123개에 불과하였던 認證業體를 95년에는 402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품질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企業健康記錄簿」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⑤ 中小企業의 技術力 제고

첫째, 95년 12월에 「技術下部構造 擴充 5個年計劃」을 수립하여 기술인력·정보·연구시설 등 中小企業의 技術開發與件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政府出捐研究所와 大學에서 개발한 340개의 기술을 中小企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102종의 연구시설도 개방하여 中小企業들이 高價의 尖端研究機資材들을 염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韓·日 部品產業協力を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형태를 단순한 技術移轉 次元에서 合作投資 등 적극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95년 4월 통상산업부장관이 訪日하여 일본 하시모토 통산성장관과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설치·모델사업 확대·對日投資誘致團과 對韓投資環境調査團의 상호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서울에서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부품산업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제 및 협력유망분야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⑥ 中小企業專用 百貨店의 건립

중소기업전용 백화점을 건립하기 위하여 94년말 203억원을 들여 서울 목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현재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96년 3월중 着工하여 97년에 完工할 계획이다.(건평 20,000평)

⑦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실질적인 協力增進

첫째, 95년 4월에는 中小企業과 大企業經營者의 合同研鑽會를 개최하여 協力增進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中小企業과 大企業간의 對話의 場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며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둘째, 中小企業과 大企業間의 협력적 분업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열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95년 8월에 36개 업종, 1,053개 품목을 系列化業種과 품목으로 지정하여 협력생 산체제를 유도하였다. 또한, 大企業보다 中小企業이 생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大企業事業의 中小企業 移讓權獎品目」(582개 품목)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셋째, 大企業의 協力中小企業에 대한 인력·기술개발 지원비용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혜택하고(96년 1월부터 시행), 94년 126개 사에 설치된 「受託企業體協議會」를 95년에 132개로 확대하였으며,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保證支援을 늘리도록 유도하였다.

⑧ 地方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強化

첫째,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을 94년 2,000억원에서 95년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貸出金利도 7.5%에서 7.0%로 하향조정하였다.

둘째, 낙후지역의 均衡發展을 위해 95년 2월 전북 정읍 2·3공단, 전남 대불공단, 강원 북평공단 등 5개 공단을 「地方中小企業特別支援地域」으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농공단지에 준하는 稅制·資金 등을 지원토록 하였다.

셋째, 지방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서울에 출하는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대전에 「中小企業綜合支援센타」를 건립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넷째, 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 「地域協同技術支援센타」를 설치하여 유관기관 협동으로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產學研共同技術開發 컨소시엄」 사업을 94년 40개 대학(40억원)에서 95년에는 50개 대학(5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⑨ 中小企業의 世界化 지원 및 規制緩和

첫째, 中小企業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輸出入銀行의 海外投資資金 중에서 약 1,000억원을 中小企業에게 지원하고, 貿易協會의 國際貿易研修院에 연 4회에 걸쳐 장기 교육과정(1년)을 개설하여 世界化専門人力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둘째, 中小企業이 쉽게 工場用地를 취득할 수 있도록 邑·面 地域에서 용도폐지된 國公有財產을 中小企業 공장용지로 특례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市外地域에 대해 종전 400m²에서 700m²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95년 7월부터 L/C(일람불)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체를 폐지하고, 기타방식의 수출에 대해서도 미화 3만달러 이하의 少額輸出인 경우 輸出承認 및 事後管理를 면제하였다.

(2) 資本財產業 育成對策

정부는 95년 5월 「新經濟」 추진회의에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機械類·部品·素材 등 資本財產業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韓國經濟의 世界化를 위한 資本財產業育成對策」을 확정·발표하고, 이에 따른 40개 세

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본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98.8% (2만4천개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만큼, 資本財產業 育成對策은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① 需要基盤擴大

첫째, 國產機械購入資金의 금리수준 등 금융조건이 외산기계구입자금보다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96년까지 국내외 금융조건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95년에 국제금리수준의 外貨表示 國產機械購入資金의 규모를 1,2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여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창출을 지원하였다.

둘째, 機械類 生產企業들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계류를 생산하는 48개 기업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연합기계 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하였다.

셋째, 기계류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5년에 延拂輸出資金 2조8천억원을 지원하였고, 對外經濟協力基金의 운용규모도 6,930억 원으로 늘렸다.

② 生產支援 확대

첫째, 그동안 추진해 오던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사업의 경우 개발자금 지원규모가 불충분하여 핵심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工業發展基金 중 시제품개발자금을 95년에 1,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개발대상품목의 대형화에 따라 품목당 融資限度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되, 필요한 경우 특별한도를 인정하여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갖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新技術創業企業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95년 6월부터 新技術事業金融會社가 대출심사를 할 때 技術性에 대한 배점을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셋째, 95년 7월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자본재기업의 技術開發準備金의 積立限度를 현행 매출액의 3%(기술집약산업: 4%)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의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다.

넷째, 그동안 자본재산업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5년에 18건의 표준규격을 제정하였다. 앞으로 2000년까지 총 600건의 표준규격을 제정·보급하는 등 제품의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③ 品質保證業務 강화

첫째,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도 수요자가 품질을 믿지 않아 구매를 기피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國立技術品質院에 「品質認證센터」를 설치하여 國產機械 品質認證事業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95년 7월부터 국내외 자본재를 대상으로 품질비교평가를 실시하여 품질평가에 합격한 60개 제품에 대하여 「優秀品質마크」로 EM마크를 부여하였다.

둘째, 「優秀品質마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技術信用保證基金의 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금에서 소요자금의 50%까지 융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④ 技術·人力 및 情報 지원

첫째, 기술과 기능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工高·專門大·工科大學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전체 고교생 중 공고생의 비율을 94년의 14%에서 2000년 까지 22%까지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기능대학 등 2년제 多技能技術課程에 전문대 수료학력을 인정하고, 금형·용접 등 수요가 많은 단기직업훈련과정의 연수대상인원을 확대하였으며, 기술수준이 낮은 設計部門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둘째, 직업훈련기관의 노후 教育機資材를 연차적으로 최신 국산기자재로 교체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95년 7월부터 中小企業附設研究所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 종업원수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또한, 자본재 생산 중소기업 근무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資本財產業의 中小企業에서 3년 이상勤務하는 현장기술·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에 따라 所得稅를 경감하기로 하였다.

⑤ 外國人投資의 적극 유치

첫째, 광주 평동의 外國人專用工團의 분양가를 인근 공단 수준인 평당 28만6천원으로 인하조정하였다. 또한, 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당초임대가격의 45.3%인 연간 평당 1,587원으로 대폭 경감하여 현재 17개사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거나 입주를 준비중에 있다.

둘째, 外國人專用工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輸入國多邊化制度의 조정을 통하여 일본 기자재와 부품의 수입을 허용하였고, 95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優秀外國人力의 체류최장기간을 18년으로 연장하였다.

셋째, 對日投資誘致를 촉진하기 위해 95년 7월 기계, 전자·정보, 자동차부품의 3개 업종별로 대일투자유치단을 파견하였고, 95년 11월에는 동경에서 「韓國部品綜合展示會」를 개최하였다.

(3) 中小事業者 構造改善 促進對策

그동안 시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노동 집약적 輕工業·建設業·소규모 都·小賣業 등 中小事業者의 構造改善과 經營安定을 지원하기 위해 95년 9월 「新경제」 추진회의에서 「中小事業者 構造改善 促進對策」을 확정하여 추진하였다.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규모를 95년 2,500억원에서 96년에는 4,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지원대

상을 中小製造業 중심에서 流通·物流·知識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個別企業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재개발 등 共同事業도 지원토록 하였다.

② 中小企業의 連鎖都產을 防止하기 위해 中小企業 共濟事業基金의 운영체계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1호대출(부도어음대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하였다.

③ 中小事業者의 事業轉換을 촉진하기 위해 非製造業에서 製造業·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할 경우 讓渡所得稅를 50% 감면하고 장기결손 中小事業者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3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④ 中小企業의 經營애로를 相談·診斷·指導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95년 9월부터 전국 12개 지역에 「中小企業 經營隘路相談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通商產業部長官 주재로 지역별 「經營隘路 総合相談會」를 12회 순회 개최하여 中小企業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였다.

⑤ 中小事業者가 資金을 원활하게融通할 수 있도록 擔保力擴充 및 信用保證擴大方案을 마련하였다. 95년 8월 신용보증기금의 간이심사보증요건을 완화하고, 金融機關의 不動產擔保取得制限 및相互信用金庫의 與信禁止業種을 폐지하였다. 또한, 地域信用保證組合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95년 11월 大企業出捐分에 대해 捐費로 인정하는 稅制支援方案을 마련하였다.

⑥ 中小事業者の 稅金負擔輕減을 위해 소매점, 전문건설업체 등 中小事業者의 標準所得稅率을 하향조정하고, 附加價值稅를 경감하기 위해 課稅特例基準金額을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少額不徵收金額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⑦ 재래시장의 再開發 및 소규모점포의 現代化 등 中小流通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재래시장의 이전·재건축시 讓渡所得稅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주거지역내 再建築面績을 종전면적의 2배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4배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中小企業特別法 制定

작년 말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및 經營安定支援을 위한 特別措置法」을 제정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中小企業의 構造改善 촉진과 經營安定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을 제도화하였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政府는 中小企業의 構造改善과 經營安定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에 따라 매년 「構造改善支援計劃」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② 經營與件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中小企業들이 심각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는 경우에 中小企業의 經營安定을 위하여 「緊急 經營安定 支援計劃」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事業轉換을 추진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재래시장의 再開發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상의 特例를 정하였다.

⑤ 大企業의 中小企業에 대한 代金決済條件을 주기적으로 調査하여 公表하는 한편, 大企業이 발행하는 어음의 장당금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中小企業의 現況

新政府 출범이후 우리 中小企業은 전반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中小製造業의 경우 94년중에 生產과 輸出이 각각 전년 대비 12.2%와 15.7% 증가하여 88년 이후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며, 設備投資도 20.1

%나 증가하였다. 95년에도 생산이 9.6%, 수출은 21.6%, 설비투자는 12% 증가하여 전년의 신장세가 지속되었다.

Table 2. 중소기업 生产·수출·투자 동향

(단위 : %, 업체)

구 분	1992	1993	1994	1995
생산증가율	5.7	2.6	12.2	9.6
수출증가율	6.9	14.6	15.7	21.6
투자증가율	5.4	9.6	20.1	11.4

이와 같은 중소제조업부문이 활기를 되찾게 된 것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등에서 對外經濟與件이 호전되는 가운데 「新경제 5個年計劃」에 의한 構造改善事業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中小企業人·勤勞者·國民 모두가 땀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또한, 94년에 월평균 1,400개 정도의 法人이 신설되었고, 95년에는 新設法人數가 90년대 들어 최고수준을 나타내어 우리 產業의 底邊이 착실히 다져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Table 3. 중소기업 창업 동향

(단위 : 업체수)

구 分	1992	1993	1994	1995
창업법인수	13,702	11,938	16,723	17,245
(월평균)	1,141	995	1,394	1,437

※ 7대도시의 신설법인기준임.

그러나, 이러한 창업증가와 함께 부도율도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중소기업 부도중 製造業體 및 流通業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建設業體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製造業의 경우, 重化學工業 部門의 부도증가율은 95년중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輕工業 部門의 부도증가율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Table 4. 중소기업 부도 동향

(단위 : %, 업체)

구 분	1992	1993	1994	1995
부도기업수	10,769	9,502	11,255	13,992
·법인	3,714	3,402	4,503	6,031
(월평균)	310	284	375	503
·개인	7,055	6,100	6,752	7,962
부도율	0.12	0.13	0.17	0.20

Table 5.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 부도 동향

(단위 : 업체,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제조업	3,259 (96.7)	2,850(-12.5)	3,133 (9.9)	3,552(13.4)
중화학공업	887(105.3)	747(-15.8)	814 (9.0)	797(-2.1)
경공업	2,372 (93.6)	2,103(-11.3)	2,319(10.3)	2,756(18.8)
건설업	1,131 (94.3)	1,135 (0.4)	1,201 (5.8)	1,751(45.8)
유통업	3,688 (75.5)	3,077(-16.6)	3,298 (7.2)	3,448 (4.5)
기타	2,690 (47.9)	2,440 (-9.3)	3,623(48.5)	5,240(44.6)
전체 산업	10,769 (74.9)	9,502(-11.8)	11,992(18.5)	13,992(24.3)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이러한 현상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건설업, 유통업 및 서비스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競爭력 있는 中小企業은 확장되는 한편 限界企業의 倒産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산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資金融通의 일시적 곤란, 販路의 일시적 애로 등으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向後의 中小企業施策

앞으로 中小企業施策은 지난 2월 12일 설립된 中小企業廳을 중심으로 종전의 거시적인 접근과 함께 실질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미시적인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中小企業의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中小企業構造改

善事業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기술·품질·경영 혁신을 위한 多角的인 支援施策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構造調整過程에서 中小企業들이 마음놓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資金·人力·立地·販路 등 경영전반에 걸친 隘路要因을 해소하고, 유망한 中小企業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倒産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中小企業施策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中小流通業部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가. 中小企業의 自生的 競争力 基盤 確立

① 금년에는 中小企業의 自動化·情報化·新技術事業화를 지원하는 構造改善事業을 당초보다 1조원이 늘어난 2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약 6,000개 業體를 지원하고, 지원절차를 대폭

簡素化하여 1/4분기중에 자금 추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中小企業振興公團안에 「自動化센터」를 3월중에 개원하여 자동화 진단·지도·교육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② 中小企業이 經營革新과 品質革新 努力 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진흥 공단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월부터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남권·호남권·중부권 등 3개 권역별로 중소기업 지방 연수원의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100PPM 品質革新事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2회 「100PPM 달성 품질세계화 전진대회」를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母企業과 協力企業 의 연계강화 등을 통하여 참여업체를 작년의 63개 모기업·1,800개 사에서 금년에는 100개 모기업·5,000개 사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된 「中小企業 經營隘路 相談센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經營隘路 地域對策協議會」를 운영하고, 지난해 개최한 「中小企業 經營隘路 綜合相談會」를 지속적으로 순회·개최하여 中小企業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③ 성장유망한 中小企業이 創業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創業支援基金에 대한 政府出捐을 작년의 100억원에서 금년에는 17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실적이 우수한 緑色創業投資會社에 대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창업보육센타」를 현재 운영중인 5개소 외에도 금년에 5개소를 추가로 建立할 것이다.

④ 中小企業이 大企業과의 상호보완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協力關係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36개 업종 1,053개 품목을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系列化' 품목으로 지정하여 협력생산체제를 확산시키고, 대기업 사업 중 中小企業이 생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事業을 移讓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또한, 현재 132개 母企業에서 운영하고 있는 「受託企業體協議會」를 금년에는 140개로 확대하여 大企業과 協力中小企業들이 공동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⑤ 본격적인 地方化時代에 부응하여 地方 中小企業의 育成基盤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을 작년의 4,872억원에서 금년에는 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地方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를 작년의 2개소에서 금년에는 7개소로 확대하여 지방중소기업들이 서울에 준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 中小企業의 安定的인 經營與件 造成

① 中小企業의 資金難 解消를 위해 資金供給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한편, 특히 中小企業의 취약한擔保力を 보완하고 販賣代金 決濟慣行을 개선·보완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信用保證餘力を 늘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액을 95년의 4,100억원에서 금년에는 5,000억원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保證運用倍數가 금년부터 기본재산의 15배에서 17배로 확대됨에 따라 2조원 이상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地域信用保證組合이 3월 19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데 이어 광주·경남에서도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금년 3월부터 大規模 企業集團 所屬業體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여 결제조건의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지난 해부터 운영중인 1조 2,600억원 규모의 상업어음할인 전담채원 이외에 금년에는 5천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이의 취급은 행을 늘리며 비직격어음에 대한 할인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② 中小企業의 人力難 해소를 위하여, 지금 까지 도입·배정한 5만명의 外國人 產業技術研修生을 도입·배정한데 이어 금년에 2만명 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체 근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產業機能要員制度를 활성화하여 금년에는 총 39,000명을 7,000 개 업체에 배정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 기술자격요건 및 근무분야에 대한 제한완화 등을 통하여 中小企業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수한 인력이 中小企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자본재 산업의 기능인력에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所得控除制度를 제조업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大企業의 부당한 중소기업 인력스카웃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성공적으로 열린 「中小企業 採用 博覽會」를 지방에서도 개최하여 中小企業의 우수인력 채용기회를 확대 할 것이다.

③ 中小企業에 대한 원활한 立地供給을 위하여, 경기 김포공단·포천 양문공단 등 中小企業專用工團 2개를 완공하여 中小企業에게 분양하고, 경기 일산·대전 판암 등에 대규모 아파트형공장 2개 단지를 착공할 것이다.

④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구축하고 販路 確保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 3조원 규모의 289개 團體隨意契約物品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자간에 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물품을 71개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을 3월중 확정하여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현행 43개 기관에서 57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EM」 또는 「NT」마크 획득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

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다. 資本財產業의 持續的 育成

정부는 작년에 수립된 資本財產業 育成對策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본재 산업을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輸出產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① 우선, 기계류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불수출자금을 작년의 2조8천억원에서 금년에는 3조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규모도 작년의 6,930억원에서 금년에는 8,96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이와함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展示需要에 부응하고 모터쇼 등 대형 국제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國際資本財綜合展示場」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수출 자본재에 대해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해외 공동A/S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② 자본재 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개발자금을 작년의 1,500억원에서 금년에는 2,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본재 개발과 생산의 기초가 되는 금형의 품질향상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형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플랜트 생산업체의 기술배양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플랜트 건설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플랜트 건설공사 입찰시 플랜트 생산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③ 「優秀品質마크」 품목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제품 손실액을 배상하는 「瑕疵保證制度」를 금년 상반기중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하자보증 기금에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씩 출연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④ 자본재 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振興公團에 국내외 脊 역기술자로 「技術指導團」을 구성하여 核心隘路

技術에 대한 現場指導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⑤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기술·경영·판매 등 모든 분야에 대한 One-Stop Service 體制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에는 인천지역에 「資本財產業 綜合支援센터」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주요공업단지로 설립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동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중계하고, 공동전시·판매, 인증획득과 기술체험, 원·부자재 가공·판매 등 資本財產業과 관련된 각종 지원기능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⑥ 우리 資本財產業의 世界化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3월에는 일본의 「對韓投資調查團」을 유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단을 미국·EU지역으로 확대 파견하며 部品展示會도 세계 주요거점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라. 中小流通業의 活性化

① 중소유통업의 構造改善을 통해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800억원을 지원하여 40개 在來市場을 재개발하고, 2,000개 小規模店鋪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50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기기(POS : 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 도입을 통한 流通情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통합리화자금중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中小企業의 物流費 경감을 위하여, 共同集配送團地를 현재 건립중인 용인·부산·대구·광주의 4대 권역외에 금년중에 곤지암, 시화·창원·주안공단의 4개 지역에 추가로 건립하고, 금년 중 26개의 共同倉庫 건립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2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중소유통업의 經營安定支援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하여, 중소유통업협동조합에 대해 200억원의 共同購買資金을 지원하고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共濟事業基金 가입을 허용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유통업체에 대한 信用保證限度를 현재 연간 매출액의 1/6 수준에서 제조업과 같은 수준인 연간 매출액의 1/4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 中小企業廳의 設立

지난 2월 12일 中小企業廳이 설립되고 이와 동시에 4개 地方中小企業廳과 7개 시·도의 地方中小企業事務所들이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中小企業의 構造調整 및 經營安定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한 차원 높은 中小企業政策이 추진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中小企業廳」이 설립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肯定的인 效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지금까지 중소기업시책은 업종별 구분없이 중소제조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신설된 中小企業廳은 자금·인력·기술 등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機能別(지원총괄국, 기술국) 組織과 함께 업종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業種別(산업1국, 산업2국, 유통업국) 組織을 갖추게 됨으로써 종합적인 중소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② 중소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隘路를 해결하는 現場密着의 지원으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전국 11개소의 地方廳과 事務所가 中小企業振興公團 支부 및 地方自治團體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원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中小企業의 構造改善努力에 대한 조직

적,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리 中小企業 競爭力強化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상산업부에 「技術品質局」을 신설하고, 中小企業廳의 「技術局」과 「國立技術品質院」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④ 中小企業廳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예산을 관장하고 「中小企業 金融支援協議會」를 운영하게 됨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관련 금융기관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中小企業廳 擔當局長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⑤ 중소기업관련 7개 법률에 근거한 통상 산업부장관의 119개 권한중 113개 권한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中小企業廳 時代가 열리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각종 시책의 執行基準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시책의 實效性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中小企業人의 새로운 姿勢

21세기를 5년 앞두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에게 힘겨운 挑戰과 함께 새로운 機會로서 다가오고 있다. 특히, 世界化·地方化·情報化的 도도한 물결은 우리 中小企業의 한 발 빠른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中小企業의 도산이 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많은 中小企業이 창업되고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환경이 바뀌면 정부의 정책도 달라져야 하고 기업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세계일류 수준의 中小企業은 中小企業人과 勤勞者들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는 우리 中小企業이 「參與」와 「創意」를 통하여

강인한 체질을 가진 世界一流의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新經濟」가 지향하는 「競爭의 主體」로서 中小企業人の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① 우리 中小企業이 自己資本比率을 높여 재무구조를 충실히 하는 것은 부도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우리 中小企業의 負債比率은 388.1%(93년 기준)로 일본 등 경쟁국의 두배 이상이며, 賣出額에서 차지하는 금융비용의 비율도 우리나라 4.6%인 반면 일본·대만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中小企業의 취약한 재무구조는 담보위주의 금융관행과 고금리, 보편화된 외상거래관행 등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지만, 企業內部의 방만한 經營活動이나 過剩投資 등에도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다. 정부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商業어음 割引財源의 확충·신용보증제도의 보강 등을 추진하는 한편, 大企業들이 協力中小企業에 대해 現金決濟 등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中小企業들이 스스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경영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投資決定을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資金需要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② 中小企業人們이 눈앞에 닥친 不渡危機를 맞아서 어려움을 호소하기 앞서 다가올 經營危機를 事前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中小企業들이 中小企業 共濟事業基金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적어도 타인의 부도로 인한 連鎖不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공체사업기금을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③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中小企業들은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양업종에서 성장업종으로, 저부가가치업종에서 고부가가치업종

으로 事業을 轉換하고, 內需中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經營戰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 中小企業들은 세계경제동향과 신기술동향을 파악하는 國際的인 감각과 정보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인간적인紐帶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勞使關係를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 종업원 수가 적어 서로간에 인간적인 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족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가지고서는 높은 離職率, 技術·技能人力의 부족, 낮은 기술력과 생산성 등 中小企業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自生力과 競爭力を 갖춘 中小企業이 되는 출발점이며 기업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서 中小企業人们이 勤務環境, 福祉, 安全問題, 趣味活動 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勤勞者들이 主人意識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經營을 공개하고 勤勞者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⑤ 社長이하 전 企業員들이 技術·品質 第一主義를 지향하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통하여 세계일류의 제품과 품질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부가 汎企業運動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PPM 品質革新事業」에 中小企業人们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기 바란다.

⑥ 中小企業과 大企業간의 관계가 對立的關係가 아닌 相互同伴者的 協力關係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中小企業人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구조가 高度化됨에 따라 產業間·產業內 分業化가 심화되고 이는 中小企業과 大企業 각자가 가진 資金·人力·技術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利益을 가져다 줄 것이다.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同伴者的 關係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大企業이 우선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등 공정한 下都給秩序를 확립하는 데에 앞장서야 하겠지만, 中小企業도 다른 기업에 비해 싸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적기에 납품함으로써 大企業이 믿을 수 있는 協力業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⑦ 中小企業人们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企業員들의 資質向上을 위해 研修·訓練·再教育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대학에서 企業人们을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생산성본부·표준협회·무역협회 등의 기관들도 經營者와 現場人을 위한 일반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하루의 기업경영과 생산활동에 바쁘다고 해서 中小企業人们이 자신과 종업원들의 연수와 훈련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中小企業人们은 항상 經營戰略 수립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고 企業人으로서의 소양을 가꾸어 나가야 하며, 勤勞者들에게도 자기발전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